

광주 전역이 예술의 현장...광주비엔날레 30일 앞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전시 작품 반입이 시작되는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4월 7일 개막하는 올해 비엔날레 전시작 차이시웨이 '나선형 향만트라-반아심경' (광주비엔날레 제공)

4월7일~7월9일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주제...오늘 홍보관 개관 전시작품 반입 등 준비 한창...2일권·KTX 패키지 등 마케팅 박차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차용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삼은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4일 동안 광주 전역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주공간인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등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프랑스 등 9개국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도심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만날 예정으로 있어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광주 전역이 역동하는 동시대 미술 현장으로 변신한다.

(재)광주비엔날레 재단(대표이사 박양우)은 8일 비엔날레 홍보관을 개관하고 머물다가는 축제를 위해 2일권 입장권을 개발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전시장 레이아웃 공사와 함께 해외에서 전시 작품 반입도 시작되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작품 반입, 설치 작업 분주

이숙경 예술감독이 꾸린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78명의 작가(팀)이 초대됐

다. 전시 작품 중 40여점이 신규 커미션으로 관람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지난 1월부터 항공과 배로 작품 운송이 시작돼 3월 초부터 작품이 속속 반입되고 있다. 본격적인 작품설치는 3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본전시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등도 전시 공간 조성이 한창이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 공간 디자인은 짧은 기간 열리는 비엔날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 모듈식 구조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

역대 비엔날레 중 처음으로 5전시관으로 입장해 1 전시관으로 나오는 역순을 택한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은 소주제별로 전시 공간이 구획된다. 광주의 정신을 영감의 원천이자 저항과 연대의 모델로 삼은 '은은한 광문'을 비롯해 전통을 재해석한 '조상의 목소리', 이주와 디아스포라를 탐색한 '일시적 주권', 생태 환경에 대한 정의에 질문을 던지는 '행성의 시간들' 등이다.

이숙경 예술감독은 광주에 상주, 설치 작업을 지휘하며 이달 중순부터 작가들의 신작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광주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또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도슨트를 선발, 교육을 진행중이며 전

세계에 비엔날레를 홍보할 글로벌 서포터즈도 활동을 시작했다.

#마케팅과 홍보 강화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과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재단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7일~11월7일)를 개최하는 광주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해 '비엔날레 도시' 광주를 위한 패키지 입장권을 개발했다. 통합 입장권은 31% 할인된 2만 2000원으로 구입 가능하다. 또 비엔날레 티켓이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측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 숙박업체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도 진행중이다. 홀리데이인 광주, 광주 유담 부티크 호텔&레지던시, A.C.C DESIGN 호텔,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등의 숙박객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머물다가는 축제를 위해 2일권 입장권(2만 4000원)을 개발, 개막 후 현장판매를 진행하며 KTX 및 SRT 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패키지도 3월부터 판매중이다. 예매 입장권은 4월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네이버 예매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현장 판매 입장권 보다 최대 40% 가량 저렴하다.

그밖에 재단은 개막을 한 달 앞둔 8일부터 한달간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도 본격 운영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조감도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17일 착공식...전통 건축 '차경' 모티브, 2025년 완공 목표

'차경'(借景)은 풍경을 빌려오다, 또는 풍경을 끌어들이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전통 건축의 원리에서 많이 구체화한 개념으로 현대 건축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고분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통 건축의 원리인 차경 개념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 복합문화관의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한다. 오는 17일 오후 3시.

디지털 복합문화관은 첨단기술을 문화영역에 접목한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고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나주박물관의 특성을 살려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했다. 완공은 오는 2025년 개로 예상된다.

기존 본관 건물은 공간적 한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나주 반남면 일대 고분군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여기에는 공연장을 비롯해 어린이박물관, 미래형 수장고, 휴게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전체 건물 연면적은 4,393㎡로 주요 시설인 공연장은 300석 규모이다. 특히 호남권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보관할 미래형 수장고는 최신 설비들이 갖춰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나주박물관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및 건축공사 등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할 바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은 ㈜중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건축공사는 (유)유리건축, 전기공사는 금산전력(주), 통신공사는 ㈜케이비케이, 소방공사는 ㈜화신전력이 계약이 체결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리의 모험'

창극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리의 모험'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 상설 공연... 11일 진악당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이 올해 첫 토요일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 또 국악원에 전시 공간도 조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아리수가 제작한 퓨전국악 창극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리의 모험'이 오는 11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열린다.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리의 모험'은 숲속 마을에 사는 작은 병아리의 모험을 담은 어린이 음악극으로 우리나라 민요와 판소리를 활용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마술 등 풍부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삽입했다.

작은 병아리 '아리'는 엄마를 찾아 떠난 모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아 엄마를 무사히 만난다.

국립국악원은 진악당(공연장) 로비에 새롭게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공연과 전시, 체험을 아우르는 공간이다.

전시 공간은 최첨단 IT 기법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를 비롯해 재미있는 실감형 전시 콘텐츠와 국악기 음원 감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확인. 문의 061-540-40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들려주는 쇼팽

광주시향, 4월 7일 전남대 민주마루...케빈 케너 협연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들려주는 쇼팽의 '피아노협주곡'을 만난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오는 4월 7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공연장에서 37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그리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첫사랑에 대한 마음을 담은 쇼팽의 음악과 슬픈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만난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연의 지휘로 연주되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op.2'은 쇼팽이 프랑스로 망명하기 전 조국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작곡한 작품이다. 발표 순에 따라 2번으로 불리지만, 제작 순에 따르면 첫번째 피아노협주곡에 해당한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담은 '피아노협주곡 2번'은 모든 악장이다 인상적이지만 특히 우수 어린 2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협연자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다. 12회 쇼팽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1위 없는 2위)과 폴로네이즈 상을 수상한 그는 같은 해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케빈 케너는 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듀오 파트너로 오랫동안 연주했으며 지난 2월 서울 공연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공연 후반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F단



김영연



케빈 케너

조'가 연주된다. 불행한 결혼생활과 인생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던 1877년에 작곡된 4번 교향곡은 후기 교향곡 중에서 러시아적 색채가 가장 짙은 작품으로 변화무쌍하고 화려하며 정열적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박물관 50년 역사, 온라인으로 본다

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DB화

신안군 해저 유물 조사(1976-1984), 백제 금동대향로 발굴(1993년 12월) 등...

"내 손 가까이에서 지리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박물관 역사라는 시간속에서 문화재가 기록하는 그 가슴 떨린 이야기를 웹진을 통해 다시 만나보세요."

국립박물관 50여 년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중앙박물관은 박물관신문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의 지면을 비롯해 이미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에 따라 모두 1만4000여 건의 기사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했다. 신문은 박물관 웹진(<https://webzine.museum.go.kr>)에서 볼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소식지 박물관신문은 지난 1970년 7월 창간됐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등 지역 소재 국립박물관 소식을 매달 한차례씩 전해왔다. 초창기에는 4면이었지만 최근에는 지면이 크게 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600호를 돌파했다.

박물관신문에서는 전시, 학술, 출판은 물론 소장품, 인터뷰, 소장품 등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